



라이브어스텍 페인트 '어슬로'

#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연 페인트 만들었죠”

“페인트를 넘새나는 유해물질이라고 여기는 인식 자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오상근 라이브어스텍 대표의 말이다. 그는 “천연페인트 ‘어슬로(Earthslow)’는 방해석, 황토석 등을 원료로 만들어 천연 무기질, 미네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두 시간 만에 완전 건조

오 대표는 “어슬로는 95% 이상 흙으로 만들어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L당 0.03g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인 40g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그는 이어 “아주 작은 구멍으로 된 다공질 구조로 돼 있어 습할 땀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땀 습기를 내뿜어 습도 조절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어슬로에는 탈취 기능도 있다. 그는 “얼마 전 학교 등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이 어슬로를 코밑에 발랐는데도 전혀 페인트 냄새가 나지 않아 놀랐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악취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탈취 기능까지 있다”고 말했다.

어슬로는 DIY(do it yourself)에 적합한 제품이다. 그는 “벽지처럼 별도의 시공 기술도 필요 없고, 일반 페인트처럼 바르기 전에 따로 휘저지 않아도 된다”며 “기온 25도, 습도 65%의 환경이면 두 시간 안에 완전 건조된다”고 강조했다. 공장 실내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일반 페인트는 완전 건조되기까지 보통 하루 이상 걸린다.

## 2시간 만에 완전 건조 95% 이상 흙으로 만들어 아토피 아이위해 제품 개발

◆ 아토피 잡기 위해 의기투합 오 대표와 홍보를 맡고 있는 김홍겸 이사는 매형-처남 사이다. 제품을 개발한 이찬석 이사는 김 이사의 오랜 친구다.

이들은 자녀들이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앓은 것을 계기로 친환경 페인트 개발에 나섰다. 제품 개발에 7년 이상 걸렸다. 시행착오도 겪었다.

주성분인 흙이 가라앉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페인트 개

발에 결정적이었다. 이 회사는 팽연토, 벤토나이트 등의 부력을 활용해 흙이 가라앉는 속도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벽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칠할 수 있어 접착제의 유해성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어스텍 사무실 자체가 실험실이다. 실크 벽지를 바르고 그 위에 다양한 색의 페인트로 그림도 그렸다. 16.5㎡ 벽면을 칠할 수 있는 페인트 20kg에 15만원 이다.

## ◆ 유아용 놀이물감도 개발

이 회사는 천연 페인트 어슬로가 다양한 조색이 가능하고 페인트 특유의 냄새도 없다는 점을 활용해 유아용 놀이물감도 개발했다. 오 대표는 “진흙 빨과 같은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며 “물처럼 흘러내리는 기온의 놀이물감과 달리 점성이 좋아 아이들 촉각 자극에도 좋다”고 했다.

지난 5월에는 흙 성분이 들어간 천연 비누를 시장에 내놓았다. 오 대표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시범 판매하고 있다”며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지성용 피부에 좋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산=추기염기자 gychu@hankyung.com



오상근 라이브어스텍 대표가 친환경 페인트 어슬로의 주성분인 방해석, 황토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중견제약사 '2세' 공격 경영

## 뉴스카페



국내 제약업계에서 40~50대의 2세가 이끄는 중견 제약사들이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 있다. 보수적인 창업 1세대와 달리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영업에 앞선 영업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들 2세가 이끄는 회사 대부분은 매출 규모가 1500억~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도 공통점이다.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경영하는 중견 제약사는 윤성태 부회장(50)이 최대주인인 휴온스다. 치과용 국소마취제와 인공 눈물 1위 업체인 휴온스는 최근 중국에 인공눈물 공장을 완

## 휴온스·안국약품 등 적극적 인수합병·마케팅 보수적 1세대와 차별화

공한 데 이어 연말에는 필러 원료를 생산하는 자회사 휴메딕스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의약품 중심의 기존 제약사와 달리 특화된 포트폴리오가 이 회사의 강점이다.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5%, 16.7% 늘어난 734억원과 107억원을 기록했다. 휴온스는 올해 매출 2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과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안국약품은 어진 시장(50)이 공격 경영을 지휘하고 있다. 어 시장은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국적사와의 공동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개량신약에 강점을 지닌 대원제약은 특화된 의약품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백승호(58)·승원(55) 형제가 최대주인인 이 회사의 위엄치료제 ‘오티렌’을 비롯 진통제 개량신약에 힘입어 상위사들의 처방액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처방액이 늘고 있다. 상반기에만 매출이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한 동국제약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상반기에 1079억원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판관비 관리로 영업이익 규모도 13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늘었다. 권기범 부회장(47)이 최대주인인 동국제약은 최근 ‘인사돌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세 창업자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았던 2세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색깔을 내고 있다”며 “이들 중견 제약사의 외형과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기자 chsan@hankyung.com

# 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소집 신청 기각

## “명의만 빌린 적대적 M&A 주주권 행사 인정 못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일산업에 대해 법원이 현 경영진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성장호)는 지난 12일 황기남 씨가 신일산업과 이 회사 대표인 송권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법원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황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표이사과 감사 해임, 신일 감사 선임 등을 안전으로 하는 주총 소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황씨 측은 오는 19일 경기 평택의 한 호텔에서 주총을 열겠다고 일부 신문에 공고가

지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 결정을 바꿔 황씨의 주총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황씨가 주총 소집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황씨는 강모씨로부터 75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주식을 산 점 등에 비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강모씨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황씨 측이 제기한 신주 1500만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

해서도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일산업 오너인 김영 회장 등 경영진은 한숨 돌리게 됐다. 김 회장은 측보유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14.11%)이 황씨 측 지분(16.68%)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또 황씨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점도 드러나 향후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지난 2월 준손 신일산업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올 3월 정기주총에서는 현 경영진과 표 대결까지 벌였지만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안재광기자 ahnjr@hankyung.com

# 중기청 차장에 최수규 靑비서관 내정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청 차장에 최수규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사진)을, 청와대 중기비서관에는 정윤모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을 내렸다. 김낙훈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 국민 91% “적합업종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1.4%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신인 차장은 행사 30회로 중기청에서 정책 기획부문을 두루 거치고, 창업벤처 차장 겸 겸기를 맡았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밝혔다.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중소기업이 잘돼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60%)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안되고 있어서’(46.9%), ‘대기업이 독점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32.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주 KC그룹, 장애인 돕기 ‘거북이 마라톤’ 대주-KC그룹의 박주봉 회장 등 직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삼양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마포 거북이 마라톤’에서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대주-KC그룹

### 일성여행사

www.ilsungtour.com

합인항공 02-735-3553 www.bravoair.co.kr

마닐라	321,600~	로스앤젤레스	1,282,800~
세부	441,600~	뉴욕	2,086,900~
동경/오사카	222,100~	토론토	2,165,400~
홍콩	348,600~	밴쿠버	1,592,400~
파리/런던	1,606,100~	시드니	1,190,300~
프랑크푸르트	1,496,300~	오슬로	1,382,800~

### 태국골프장 오픈기념특가

11/27 **롬부리 나라이힐 18+9홀 증설 시범라운딩**  
무제한 골프 5일 749,000 ★좌석 추가확보

11/20 **치앙마이 카운툼레이크CC 명품골프장 오픈**  
무제한 골프 5일 999,000 ★선착순 40명

### 10월 연휴 중국골프

7 아시아나 이용, 전역석 도입

★ 10/3,9 출발 ★

대련 삼색	3/4일	619,000~
청도 금산/삼색	3/4일	669,000~
위해 삼색	3/4일	749,000~
상해 침산	3/4일	990,000~

### 필리핀골프특가

세부 메르세데스	무제한 골프 5일	499,000~
세부 인터내셔널	무제한 골프 5일	599,000~
마닐라 푸에르토아주	무제한 골프 5일	399,000~
마닐라 이글스+스플랜드	무제한 골프 5일	599,000~

### 해외여행

02-734-1515 02-735-1149

개천절 HOT DAY! SALE!!

연휴에 Go! 홍콩은 지금 항공무비 파티중!

홍콩 자유여행 3일/4일 629,000~ ▶10/3 출발

한글날 HOT DAY! SALE!!

늦은 여름 휴가~ 관광야~세부니(7기니)

세부 “비 리조트” 가족여행 799,000~ ▶10/8,9,10 출발가능

### 유럽여행

여유 in 이탈리아 02-734-1510

그 어디에도 없던 여행! 내가 바라던 그 여행!

일성여행사 유럽 단독 패키지 최초 런칭 기념

9월 조기예약부터 무조건 20만원 할인!!

여행사 최초, 패키지의 단점을 없애다! 여유롭고 자유롭게!!

음선-소핑 없음, 호텔은 시내 중심에, 소규모 그룹으로 디테일 케어 서비스 (10명 출발 상품)

9월 조기예약 한정 20만원 할인!!	10월	9월 조기예약 한정 20만원 할인!!	10월
이탈리아 패키지	-3,590,000~ 3,390,000~	스페인 패키지	-3,690,000~ 3,490,000~

주관 : (주)일성여행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성수빌딩 본관 101호 ▶기획여행 보충보험 가입(5억원)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현료, 관광진흥기금/기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기타/기타] 경비는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일부 지역의 비자 요건이나 일부 선택관광 경비는 불포함입니다. (선택관광 마일리지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메뉴/상품 소개의 자율 선택사항으로 지점 여부에 따라 불이익은 없습니다.]